

기린대로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사업 ‘급물살’

전주시,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마지막 관문 2단계 심사 조건부 통과

전주시가 추진해온 기린대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사업이 최종 관문인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 문턱을 넘어서면서 사업 추진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시는 기린대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사업에 대한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의 마지막 관문인 2단계 심사가 조건부로 최종 통과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중앙투자심사에서 행정안전부는 △일반차로 감소로 발생할 수 있는 교통 영향 및 시민 의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조건으로 승인 의결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026년 개통을 목표로 기린대로 BRT 사업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현재 실시계획 승인권자인 전북특별자치도의 실시계획안 공고 및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 중으로, 시는 조만간 승인이 이뤄지면 올 하반기 착공에 들어가는 2026년 개통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 기린대로 BRT 사업은 전주시내 중심도로인 기린대로(호남제일문~한백교)의 9.5km 구간에 버스중앙차로와 중앙정류장 등 기반시설을



기린대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사업 조감도

설치하고,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총사업비는 448억5만원으로, 이 중 50%를 국비로 확보해 재정 부담도 크게 줄었다.

기린대로에 BRT가 도입되면 △전용차로를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운행하는 ‘정시성 높은 버스’ △상승 정체구간의 개선과 신호체계 정비 등을 통한 ‘교통혼잡 완화’ △중앙정류장 설

치를 통한 ‘보행자 안전 확보’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탄소발생 저감’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22년 ‘기린대로 BRT 구축사업’이 조건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이후 2단계 심사를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 정류장 설치계획 마련 등 보완요청 사항에 대해

수차례 협의를 이어왔다.

이후 지난해 한 차례 고배를 마신 후, 이번 심사를 철저히 준비한 끝에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며 최종 통과라는 결실을 맺게 됐다.

이 과정에서 시는 BRT 도입은 단순한 ‘버스 중앙차로’가 아니라 도시의 질서를 재편하는 사회적 인프라 사업으로 분석하고, 12회의 간담회와 66회의 설명회, 3회의 시민워크숍, 시민 대토론회 등 다양한 소통채널을 운영하며 시민 참여를 이끌어냈다.

그 결과 시민과 함께 기린대로 BRT 설계(안)를 최종 확정하기도 했다.

최준범 전주시 대중교통국장은 “기린대로는 전주시의 대동맥으로, 이 도로 위를 오가는 수많은 시민의 하루가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안전하고, 조금 더 예측 가능하게 바뀌는 것이 BRT 도입의 목적”이라며 “앞으로 공사추진 과정에서 불편을 있을 수 있지만, 시는 시민 여러분의 신뢰를 바탕으로 활발하게 소통하며, 불편을 최소화하고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향후 공사 단계에서는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고, 공사에 따른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에도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권희성 기자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혜택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사고 시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 등의 전동보조기기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전주시민은 올해도 만약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주시는 이달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1년간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스쿠터)를 이용하는 전주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을 일괄 가입해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은 열악한 보행 환경 속에서 전동기기를 이용해야 하는 교통약자들을 보호하고, 사고 발생 시 이용자와 피해자 모두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시는 지난 2020년 전국 최초로 장애인에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했으며, 지난해부터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모든 시민을 보장 대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기부담금을 기존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추는 등 보장 혜택을 강화해 운영되며,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보험 보장내용은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책임이다.

구체적으로는 △보행자와의 충돌로 직접 상해를 입힌 경우 △기기가 물건 등을 떨어 타인에게 간접 피해를 준 경우 △주차차단기, 엘리베이터 등 타인의 재산을 파손한 경우 △자동차와의 충돌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등이다.

그러나 이용자의 신체 상해 및 기기 손상 등은 보장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장 금액은 사고당 최대 5000만원, 자기부담금은 5만 원으로 완화됐으며, 청구 횟수나 총 보장한도에 제한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 전용상담센터(02-6952-5133)를 통해 청구할 수 있으며, 사고가 접수되면 심사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된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노인 의료·돌봄 통합 지원 강화

2023년 7월~올해까지 26억원 투입 · 2000명 대상 지원사업 추진

전주시가 노인 의료·돌봄 통합 사업을 통해 시작지대 없는 튼튼한 복지안전망을 갖추나가고 있다.

시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올 연말까지 총 26억원을 투입해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하며 총 2000명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와 요양, 돌봄, 주거 등 지역사회 내 거주를 위한 통합적 서비스를 개인별 욕구와 필요도에 맞춰 제공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우선돌봄군은 요양병원(시설) 입원·임소 경제선상에 있는 75세 이상 돌봄 고위험군으로 △재가 장기요양 등급자 △급성기 요양병원 퇴원환자 △등급외 A·B 노인맞춤돌봄 중점대상자이며, 자체유형으로 △재가 사각지대 대상자를 포함한다.

또한, 올해에는 65세 이상 고령장애 인까지 대상을 확대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시는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된

통합관정조사를 통해 기존 지자체 서비스 및 장기요양 서비스의 분절성을 해소하고, 의료, 요양, 돌봄육구의 종합관정으로 대상자에게 적정 서비스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 2022년 75세 이상 전수조사 실시 이후, 매년 75세 도래자를 대상으로 돌봄 필요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5500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대상자 특성에 맞는 돌봄서비스 연계를 통해 필요한 돌봄을 필요한 대상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시는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복지지원 발굴·관리에도 집중하고 있다.

이외에도 시는 신규지원 발굴뿐만 아니라 타 기관의 산재된 기존 복지서비스 중 활용성 높은 자원을 취합 및 현행화하고, 동 주민센터를 통해 필요한 대상에게 연계하는 등 통합돌봄서비스의 완성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진교훈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을 통해 의료와 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대상 확대와 통합관정조사 도입으로 보다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위한 카드수수료 지원

전주시가 올해도 경기침체 및 고물가 지속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수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8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전주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4년도 카드매출액의 0.5% 이내, 업체당 최대 연간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2025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인 올해 3월 10일 기준으로 전주시에서 사업을 영위하

고 있고, 지난해 연매출이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다. 그러나 △공고일 이전 폐업했거나 타 시도로 이전한 사업장 △유형업과 도박업 등 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재보증 제한업종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자는 신청 기간 내 전주시 누리집의 통합신청지원에서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을 첨부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중화산2동, 착한가게 3곳 인증 현판 전달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2동(동장 김용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송대근)는 정기기부 캠페인에 동참한 3개소 착한가게 인증 현판 전달식을 했다.

이번에 착한가게로 가입한 업체는 △웨딩스퀘어(대표 최정순) △소바(대표 이희영) △품사랑이집(원장 김미영) 3곳이며, 매월 3만원 이상 정기후원을 통해 지역사회 이웃사랑 나눔 실천에 동참하고 있다.



모금된 후원금은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나눔 사업에 소중히 쓰일 예정이다.

/권희성 기자

대한산업보건협회 전북본부, 어르신 안전 응급 구급함 전달

대한산업보건협회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강영철)는 8일,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주민센터(동장 송해인)에 경로당 전체 26개소 어르신 안전을 위한 응급 구급함을 전달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이번 지원은 지역사회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하는 경로당 내에서 경미한 부상 및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로 생활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관리 및 사용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구급함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소독약,

종합밴드, 상처치료 연고, 에어파스, 파스, 붕대, 냉찜질용 아이스팩 등 다양한 응급처치 용품이 포함되어 있다.

강영철 대한산업보건협회 전북지역본부장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술지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